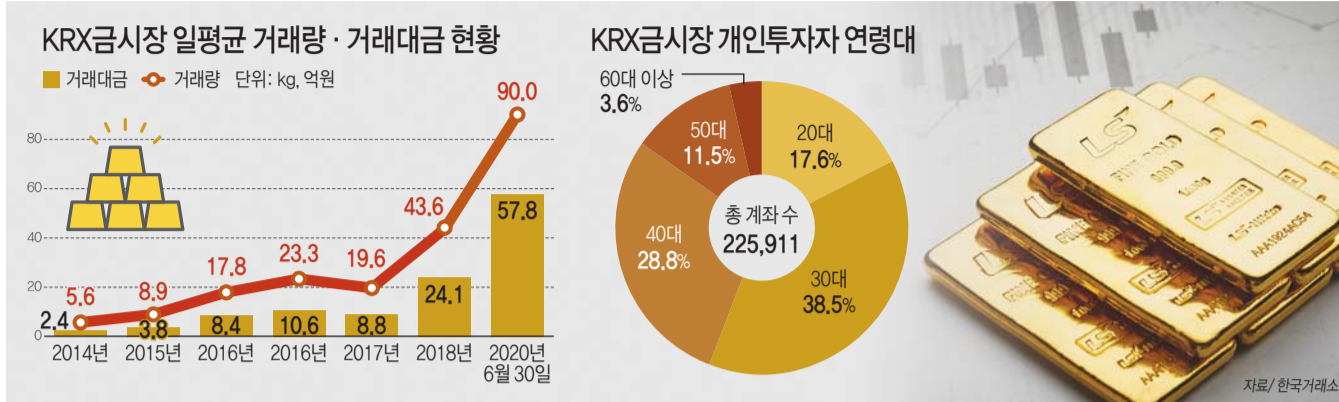


부동산도, 펀드도 못 미더워... 믿을 건 金 ‘역대 최고가’

금값 지난해보다 21.91% 올라 절반이상 30대 이하...큰손 부상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호조
“코로나19 진정돼도 매력 여전”



0%대 초저금리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금으로 향하고 있다. 지수 방향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금으로 향한 자금 이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모펀드 사고가 불러온 금융시장 신뢰도 하락도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자산으로서의 금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1g의 가격은 전 거래일(3일) 종가 기준 6만8600원으로 지난해 말(5만6270원)보다 21.91% 올랐다. 금시장이 개설됐던 2014년 말(4만2330원)과 비교하면 62.06% 상승한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약 5년 반 동안 상승분의 3분의 1이 이번 상반기 때 이뤄졌다”며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영

향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 하반기부터 빠르게 올랐다”고 말했다.

5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RX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8% 증가한 수치다. 누적 거래대금도 7103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 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거래비중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은 63.2%로, 지난해보다 7.1%포인트 올랐다. 반면 실물사업자는 18.2%로 같은 기간 8.9%포인트

줄었고, 기관은 18.7%를 차지하며 1.9%포인트 늘었다.

다만 연령층이 높을수록 참여비중은 낮았다. 시장참가자의 56.1%가 30대 이하로 가장 많았고, 40대(28.8%), 50대(11.5%), 60대 이상(3.6%)이 뒤를 이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지수 폭락을 계기로 금현물을 투자수단으로 인식하는 젊은층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지난 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6만9050원)도 머지않아 다시 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례 없는 유동성을 공급

한 데다 물가 급등으로 인한 현금 가치 하락 때문이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리스크 회피심리와 국제금리 급락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물가 급등으로 인한 현금 가치 하락은 금의 가격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금값도 1800달러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10.10달러) 오른 179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금 가격이 3개월 뒤면 1800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6개월 후 1900달러, 1년 뒤에는 2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금값이 오르면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 관련 펀드들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수익률은 17.84%로 집계됐다.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27.64%로 에프앤가이드가 분류하는 43개 국내 테마별 펀드 중 압도적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면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실물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역사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됐다”며 “이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강화되더라도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 금값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후속주자는? IPO대어 노리는 30조 청약자금

주식 청약금 50조 최초 돌파
SK바이오팜 환불금에 31조
동학개미운동 ‘빛투’ 등 기인
하반기 빅히트 상장에 관심

국내 증시의 투자자예탁금(고객예탁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국내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은 총 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 대기 자금이다. 지난 25일 46조3000억원에서 하루만에 4

조2000억원이 유입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31조원 몰린 SK바이오팜 환불금

예탁금이 50조원을 기록한 데에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환불금이 큰 몫을 했다. 지난 26일은 SK바이오팜 증거금 환불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마감된 SK바이오팜 공모주 일반 청약에는 30조9889억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기존 제일모직이 달성한 30조649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깨면서 화제를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신용거

래용자 잔고 역시 불어났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개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빚투(빚내서 투자)’를 상징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6일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2조5500억원을 기록했다. 전일(12조4400억원) 대비 1000억원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올해 사상 최고치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와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올해 들어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급증한 것은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지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개인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직접투자 선호 개인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도 투자자예탁금 상승에 기여했다.

올해 1월 2일 기준 29조8599억원에 불과했던 투자자예탁금은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국내 사모펀드 자금이 4개월 연속 순 유출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국내 사모펀드 자금은 4조9126억원 줄어 들었다.

지난 1월 7071억원, 2월 1조6355억원으로 순유입세를 보인 사모펀드 자금은 3월(-1조4662억원), 4월(-1조6144억원), 5월(-1조4271억원), 6월(-4049억원) 순 유출을 보였다.

저금리 기조에 더 이상 펀드투자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뿐더러 리스크 자산운용·유포머스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그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시세 차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시장 직접 투자에 뛰어들었다.

한편 증시 주변 대기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특히 IPO 대어급 상장이 잇따르고 있어 SK바이오팜에 몰렸던 묵혀둔 돈이 계속 증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5월 28일,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 밖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등이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문경 ~ 상주 ~ 김천

중부내륙철도건설!

상주 시민의 힘으로
끊어진 구간을 연결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상주시
SANGJU CITY